

금호석유화학그룹, 공급과잉 정면돌파... 고부가·효율화 승부

화학 계열사 경쟁력 강화 속도
SSBR·MDI·EPDM 증설 확대
친환경 소재 앞세워 시장 공략
공급 안정·판로 다변화 추진
레저 부문 체질 개선 본격화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 연구원.

/금호석유화학그룹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의 공급과잉 장기화 속에서도 계열사별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 구조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등 주력 화학 계열사는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확대와 공정 효율화, 시장 다변화에 역량을 집중 중이다. 소재·건축자재 관련 사업과 레저 부문도 친환경 제품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된 고객 접점 확대를 통해 사업 기반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전기자동차 시대 핵심 소재로 꼽히는 솔루션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SSBR) 설비를 지난해 3만5000톤 규모 늘렸고 올해 1분기부터 상업가동에 들어갔다. SSBR은 타이어의 마모 성능과 연비, 내구

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고기능성 합성고무이다. 배터리 탑재로 차량 중량이 늘고 가감속이 잦은 전기차 환경에 적합한 소재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 제품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확인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영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호석유화학은 가격 결정력을 바탕으로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에는 가동률과 스프레드 반등이 맞물리면서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성고무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과NB라텍스(NBLatex)의수급밸런스 개선,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추세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D

I) 생산능력을 10만톤 확대하는 디보틀네킹(생산 공정 효율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 투자를 결정하며 2024년 20만톤 증설에 이어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대에 나섰다. 독자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설비 활용도를 높여 투자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MDI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호폴리캠도 지난해 에틸렌 프로틸렌디엔 고무(EPDM) 7만톤 증설을 마치고 연산31만톤 규모의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EPDM은 내열성과 내기후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특수 합성고무로 자동차와 선박, 산업용 전반에 폭넓게 쓰인다. 금호폴리캠은 증설을 바탕으로 스페셜티 제품 확대와 공정 혁신을 병행하며 수익성과 원가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주요 고객사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 판매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동과 유럽 등 신규 시장 개척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수용성 친환경 에폭시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고부

가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동성케미컬과의 합작사 디엔케이캠텍은 기능성 준불연·심재 준불연 단열소재인 페놀폼(PF)보드를 금호석유화학의 프리미엄 창호 브랜드 후그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품 성능을 개선하고 심재 저탄소 인증 등 각종 환경 인증도 확보하며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다.

금호리조트는 여행·레저 수요 변화에 맞춰 시설 경쟁력과 체험형 콘텐츠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나CC를 운영하는 골프사업부는 조경 개선과 잔디 생육 환경 정비, 레이크 수질 관리, 배수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며 운영 품질을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 환경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각 사업 부문이 보유한 경쟁력을 토대로 대응 폭을 넓혀가고 있다”며 “일시적인 실적 흐름에 매몰되기보다 기술과 품질, 고객 기반을 중심으로 성장의 방향성을 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고망간강 ISO 제정... LNG 강제시장 확대

KOMERI 주도 포스코·한화오션 참여
소재 생산부터 부품 제조까지 포괄



포스코가 독자개발한 고망간강이 적용된 광양 LNG 터미널5호기 탱크.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로 급저온 저장·수송용 강제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포스코가 개발한 ‘고망간강’ 관련 국제표준이 제정되며 일본·유럽 중심 시장 구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주도로 포스코, 한화오션 등이 참여한 고망간강 관련 국제표준(ISO)이 최종 발간됐다. 표준은 소재 생산부터 부품 제조까지 전 공정을 포괄하며, 주조품·단조품·용접 피팅류·용접 강관·강판 등 5종으로 구성됐다.

KOMERI에 따르면 고망간강은 철에 다량의 망간을 첨가해 영하 162도 이하에서도 높은 강도와 충격 인성을 유지하는 소재다.

업계에서는 이번 ISO 제정의 핵심을 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보고 있다. 글로벌

별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술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다. 포스코는 앞서 지난해 7월 HIC 강재로 아랍코의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며 신규 시장에 진입한 바 있다.

극저온용 강제 시장은 그동안 일본제철과 아르셀로미탈 유럽 자회사 인두스틸 등이 LNG용 9% 니켈강 대표 공급업

체로 주도해왔으며, 고망간강은 그 대체재로 꼽힌다. 니켈 기반 소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가공성이 우수하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망간강은 망간 함량 22% 이상으로 고강도·내마모성·비자성 특성을 갖췄다. 항복강도는 335MPa 이상으로 일반 스테인리스강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상용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광양 제2 LNG 터미널 5·6호기 내조탱크에 고망간강이 적용됐고, 7·8호기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고망간강이 LNG 저장·수송 설비 전반에 적용되며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후판 하위 품목으로 분류돼 별도 매출 비중 산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현재 9% 니켈강 수요가 없어 고망간강을 국내에서 전량 조달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HD현대도 지난해 5월 포스코와 합정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구광모 “LG 존재 이유, 고객의 더 나은 삶” (LG그룹 회장)

LG어워즈서 고객가치 경영 재차 강조
“기술·제품 아닌 삶의 변화가 본질”



지난 16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LG어워즈에서 구광모(주)LG 대표가 고객 심사단이 남긴 소감을 언급하며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LG전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치는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그 자체가 아닌 고객의 더 나은 삶이다.”

19일 LG에 따르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16일 경기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2026 LG어워즈’에서 “고객 심사단이 남긴 ‘LG는 생활 그 자체’라는 말에 LG의 존재 이유가 담겨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8화째를 맞은 LG어워즈는 한 해 동안 고객가치 혁신을 통해 성과를 낸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행사로,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700여 명의 수상자와 583개의 우수 과제를 배출했다.

올해는 특히 고객의 페인 포인트 해결을 넘어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해 고객경험의 완성도를 높인 과제 ▲경쟁을 뛰어넘는 도전과 성과를 낸 사례 등 총 730명의 수상자와 91개 우수 과제가 선정됐다.

구광모 대표는 취임 이후 매년 LG어워즈에 참석해 현장의 혁신 사례를 직접 챙기며 구성원들의 도전을 응원해 왔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입자경계 코팅 95% 하이니켈 양극재’를 개발해 대상을 수상했다.

입자경계 코팅은 양극재 입자 경계에 코팅을 적용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밀도와 수명, 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한 기술이다.

LG전자 VS사업본부는 안테나와 텔레메트릭스를 통합한 ‘스마트 안테나 5G 텔레메트릭스 모듈’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차량 설계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구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HD현대중공업, 美·동남아 방산전 연속 출격

美 최대 해양 방산전 첫 참가
이지스함 등 첨단 함정 역량 공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기술 부각

개 방산기업이 참가하며, 약 1만6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은 전시회에서 LIG넥스원과 함께 150㎡ 규모의 공동 전시관을 운영한다. 전시관에는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해 호위함, 미래형 전투함, 군수 지원함, 잠수함 등 HD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첨단 함정 모형이 전시된다.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미국 해군의 차세대 해양 방위 전략을 뒷받침할 파트너로서 함정 건조 역량과 무인체계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미해군이 당면한 함대 재건 수요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

너리는 점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어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DSA 2026’에도 참가한다. 이를 계기로 말레이시아 해군이 추진 중인 중장기 함대 재편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DSA 2026에서는 대규모 상륙작전과 재난 구호에 적합한 다목적지원함을 비롯해 연안임무함, 원해경비함, 다목적 호위함, 수출형 잠수함 등 말레이시아 해군의 전력 강화 수요에 맞춘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K-해양 방산 선도 기업으로서 함정 수출 분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삼성전자, 신형 TV·오디오 체험행사 흥행

‘AI TV 워크’서 신제품 체험행사 호응

삼성전자가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형 TV와 오디오 신제품 체험행사 ‘삼성 AI TV 워크’가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일반 고객과 B2B 거래선 등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신제품 체험존에서 ‘미이크로 RGB’, ‘OLED’ 등 프리미엄 TV 라인업부터 이동형 스크린 ‘무빙스타일’,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 ‘와이파이 스텝

피커 ‘뮤직 스튜디오 5·7’ 등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삼성 TV 및 사운드 디바이스 신제품 라인업을 체험했다. 신제품 체험존은 ‘미이크로 RGB’, ‘무비’, ‘아트·디자인’, ‘스포츠’, ‘게임’ 등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각 존에서는 전문 프로모터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제품의 주요 기능은 물론, 삼성 TV만의 통합 AI 플랫폼 ‘AI 비전 컴패니언’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AI TV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차현정 기자